



프랑스 보르, 1969 © Henri Cartier-Bresson / Magnum Photos / EuroGreen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영원한 풍경'展 개최 '현대 사진영상의 아버지' 미공개작 포함 259점 전시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영원한 풍경'展이 오는 12월 5일부터 2015년 3월 1일(74일간, 매주 월요일 & 구정 당일 휴관)까지 동대문 디자인플라자(DDP) 디자인전시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영원한 풍경'展에서는 우리나라 미공개 작품을 포함해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생전에 제작된 오리지널 인쇄 작품 259점이 전시된다.

자료제공 | 마이아트예술기획연구소

사진을 예술로 승화시킨 위대한 거장이 전 생애에 걸쳐 담아낸 작품들을 보여줄 본 전시는 'Early Work in MOMA 1947', '영원한 풍경' 작품과 20세기의 눈으로 당대 최고의 거장들을 담아낸 '순간의 영원성' 그리고 카메라의 시대적 변천을 알 수 있는 'Special Exhibition'으로 구성된다.

'Early Work in MOMA 1947'에서는 앙리 카르티에-브레송 '카메라를 움켜쥐자마자' 찍은 초기 대표작은 물론 1947년 MOMA 전시 이전까지 찍은 대표작들까지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초기 작품들과 랜드스케이프, 타운 스케이프의 작품 구성 중에는 그동안 한국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이번 '영원한 풍경'을 통해 20세기 사진미학의

거장 카르티에-브레송의 사진 철학과 예술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작품들을 통해 근대 사진미학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가 왜 사진예술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목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고 작품 엄선했던 3개 주제로 구성

이번 전시는 크게 3개의 구성으로 나눠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다양한 면모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먼저 1931년에서 1947년까지의 초기 작품들로 구성된 'Early Work in MOMA 1947'은 줄리언 레비와 함께 첫 번째 전시회를 열고 자신의 작품세계를 확립하는 과정의 초창기 작품들을 포함하고 있다. '영

원한 풍경'은 '자신을 향한 마음의 눈', '풍경 속 사람들' 그리고 '도시 풍경'으로 나뉘어 전시된다. 이 작품들 중에는 그 동안 한국에 공개되지 않았던 작품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전시의 의미를 더욱 크게 한다. 20세기의 눈으로 당대 최고의 거장들을 담아낸 '순간의 영원성'은 '찰나의 시선', '상징적 초상미학', '파격적 구도와 암시' 등의 구분을 통해 앙리 카르티에-브레송의 인물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시선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이다.

3개의 구성으로 구분되는 이번 전시 작품은 카르티에-브레송의 방대한 사진 서고에서 엄선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품을 포함한 작품 259점을 통해 20세기 사진미학의 거장 카르티에-브레송의 사진 철학과 예술성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